

테마칼럼

이성체제

정치프리즘

경제의 눈

문화 향기

삭막하고 공허한 미술계 풍경



박영택

〈미술평론, 경기대교수〉

“

미술계가 무척 이상하다. 조금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오로지 돈과 자본을 앞세우면서...

”

최근 미술계가 무척 이상하다. 조금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오로지 돈과 자본을 앞세우면서...

미술작품의 질·철학·이념 실종

그리고 그런 작가가 좋은 작가로 공공연하게 인정되고 있는 것 같다. 근자에 들어 부쩍 보수화, 상업화되어 가는 이 사회분위기는 미술계에...

개인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그림은 미술에 대한 회의와 새로운 전망이 부재할 때 우선적으로 자신의 본능적인 그리기의 욕구에서 다시 출발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다.

작가 혼자만의 시간과 공력이 들어간 작품들이 두드러지게 양산되고 있는데 이 극사실주의 구성의 붓과 회화의 복귀에 대한 논의 및 그와 관련된 작품의 등장은 다름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보수성과 상업주의의 따른 반응이기도 하다.

매매실적과 주먹이 곧바로 현대미술의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작품의 질을 규정하는 힘과 권력이 되고 있다. 아트페어나 옥션에서 좀 팔렸다는 작가들이 이내 스타작가가 되고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돈과 자본이 우선하는 미술계

그런 작품들이 모두 아방가르드작업이나 중요한 현대미술인 것처럼 논의되거나 인정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질적인 재료를 장인처럼 다루거나 눈앞이 빠질 정도로 극한 묘사에...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광주 투기과열지구 해제 후속대책 필요하다

정부가 남구를 제외한 광주지역 4개구를 비롯, 24개 시·군·구를 다음달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3년7개월 만이다. 하지만, 정부의 조치는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우리는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별화하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해왔다. 수도권 집값 안정대책을 지방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바람에...

최근 지방 주택건설 경기는 증권주택업설업체인 (주)신일의 부도에서 보듯이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때늦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치만으로는 지역 건설경기를 회복시킬 수 없다.

한·미 FTA 농업피해 대책 보완해야

정부가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산업별 피해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농업분야의 조정은 농민 이해를 최소화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전업농 중심으로 농업구조를 개편,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농정 방향에는 공감한다. 개방을 앞두고 농업부분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손실을 현금으로 매워주는 피해보상 직불제나 폐업지원 등의 단기 처방으로는 우리 농업이 개방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

현실성도 떨어진다. 경영이양 직불제는 지난 1997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농지 매각이 어려운데다 쌀소매도상조도 상충돼 유명무실한 상태다.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가등록제 시행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구조조정 단계마다 일일이 감시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감독능력도 의문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박진우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 우주선이 달 착륙에 최초로 성공했던 그해 여름 미국 동부는 엄청난 눈병이 창궐했다. 토끼 눈처럼 붉어지고 심지어 피부이든 것처럼 검붉게 보였으며, 눈뜨기도 힘들고 눈에 생진 이물감으로 잠자기도 힘들었다.

기고 남세기 등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無等鼓 'A for a lying' 관' 'A for a lying'인 셈이다. 그미들은 아마 우리나라 풍습을 '제대로' 알고 싶어 한국외대 부설 한국어문화교육원에 등록했을 것이다.

회전교차로, 장점많은 평면교차로 바꾸면 어떨까 분수나 동상, 정원 등으로 장식된 회전식 교차로를 교통이 적은 지방도에 설치할 경우 과속방지는 물론 불필요한 신호대기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

너도 나도 해외 영어 연수... 영어교육 방법 개선 필요 방학을 앞두고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어린이를 상당수가 해외 영어 연수를 떠날 계획이라고 한다.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